

# KTR, 아세안 지역에 환경기술 지원

## 정부·기업에 REACH 대응방안 컨설팅 ... 선진국 규제 대응능력 제고

화학시험연구원(KTR)이 ASEAN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에 나선다.

화학시험연구원은 3월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부와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신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(Registration, Evaluation & Authorization of Chemicals)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고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3월8일 발표했다.

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설명회에는 인도네시아의 50여개 주요 관련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.

화학시험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설명회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, 태국, 베트남 등 다른 ASEAN 국가에서도 REACH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.

조기성 원장은 “REACH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선진국의 기술규제 장벽에 ASEAN 국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”이라며 “화학시험연구원이 아시아 환경기술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3/08>